

# Maison

marie claire

2025 DECEMBER  
WWW.MAISONKOREA.COM

COVER STORY  
시누아즈리 무드의 살롱

JEWELRY & ART  
명상적 회화와 만난 샤넬 주얼리

FAIR REVIEW  
디자인 마이애미 파리

TASTY & TRAVEL  
홍콩 미식  
직지사 명적암

HOLIDAY SEASON  
크리스마스 선물 아이템

## KITCHEN NOW

하이엔드 주방 트렌드와 라이프스타일별 쇼핑 아이템

정가 9,000원



# Kitchen Personas

라이프스타일이 빚어낸 6가지 각기 다른 얼굴의 주방. 일상과 취향, 습관과 꿈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이 공간은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담아낸 라이프스타일의 거울과 같다.

EDITOR 원지은, 문혜준, 원하영



## 공예미감주의자

**Keyword** 핸드메이드 세라믹, 조각적 오브제, 자연 색상

**Identity** 손맛의 질감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감각형 생활자

**Kitchen Style** 우드와 세라믹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'살아 있는 갤러리형' 주방

**Value** 실용성과 미감을 동시에 갖춘 공예적 오브제, 일상 속 작은 창작의 순간

**1** 직접 그린 초상화와 세라믹 오브제가 나란히 놓여 작은 갤러리처럼 꾸민 화가 카운 앤더슨의 주방. 인테리어는 엘리스 B. 데이비스. **2** 베르판, 하이브 옐로 선명한 옐로 컬러와 빛깔을 연상시키는 모듈형 디자인으로 주방 공간에 유쾌한 활기를 더하는 조명. **3** 글래스폼즈, 와인 칠러 스퀘어 수작업 세라믹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흐르는 유약 질감이 돋보이는 칠러. 챗터원에서 판매. **4** 브로스테 코펜하겐, 아이슬드 베이스 부드러운 곡선과 자연스러운 질감의 앤틱 브라운 컬러 세라믹 화병. **5** 아우룻, 유기 와인잔 전통 유기를 현대적인 실루엣으로 빚어낸 와인잔. 금속 특유의 높은 열전도율로 음료의 차가움을 오래 유지해준다. **6** 박홍준, 옷칠 나무 커트러리 월넛을 섬세하게 깎아 형태를 만든 뒤 천연 옷으로 마감한 수공예 커트러리. 챗터원에서 판매. **7** 르크루제, 헤리티지 뷔페 캐서롤 28cm 클래식한 디자인과 넉넉한 용량, 매끄러운 에나멜 마감의 머랭 컬러가 돋보이는 캐서롤. **8** 김보연, 트레이 굽점시 긴 타원형으로 재단한 동판에 망치로 한 점씩 타공해 텍스처를 살린 옷칠 굽점시. 에이치픽스에서 판매. **9** 윤여동, 볼컵 코퍼 소재에 은 도금으로 마무리하고 손잡이 끝 구슬로 균형과 미감을 살린 컵 세트. 아티움베넷에서 판매. **10** 펠리빙, 피브 테이블 단단한 월넛 테이블로, 부드러운 라운드 모서리와 유려한 곡선 다리가 따뜻한 분위기를 만든다. **11** 고재효, 컵리 스톤 001 견고한 우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다듬어낸 원목 스톤. **12** 김윤진, 범랑 굽점시 구리에 범랑 유약을 입혀 고온에서 구워낸 굽점시. 아티움베넷에서 판매. **13** 마르모 아레도, 칼라카타 발리 오로 고급스러운 골드 베인이 흐르는 대리석. 매끄러운 표면과 깊이 있는 결이 주방에 조각적 존재감을 더한다.



## 맥시멀리스트 미식가

**Keyword** 골드 메탈릭, 과감한 패턴, 유머러스 오브제

**Identity** 대담하고 장난기 있으며, 럭셔리한 감각으로 공간을 스테이지처럼 즐기는 타입

**Kitchen Style** 요리 공간이 아닌 파티 무대로 기능하는 활기 넘치는 키친

**Value** 과감한 미감의 조합을 통해 공간을 하나의 경험으로 확장시키는 즐거움

**1** 마르모 아레도, 베르데 세인트 데니스 질은 그린 바탕에 연한 스트라이프와 베인이 부드럽게 흐르는 이탈리아산 대리석. **2** 구비, 멀티라이트 월 램프 매트한 블랙 마감의 벽등. 회전 가능한 것으로 빛과 그림자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. **3** 고히르월드, 오페라 글러브 메탈릭 골드와 레이스 디테일이 마치 패션 오브제처럼 느껴지는 주방 장갑. **4** 카를로 모레티, 고블렛 원형을 겹친 베이스 위로 길게 뻗은 실루엣과 선명한 컬러, 금박 장식이 아름다운 글라스 잔. **5** 포르나세티, 트레이 삼패인 코르크가 튀어 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그래픽을 실크 스크린과 래커 마감으로 완성한 트레이. **6** 알레시, 알레산드로 M 코르크스크루 체크 패턴과 화이트 있는 디자인이 만나 테이블 분위기를 한층 생동감 있게 만드는 오프너. **7** 알레시, 테가미노 에그팬 웨이브 형태가 돋보이는 손잡이가 특징인 작은 에그팬. **8** 부첼라티, 타히티 트리플 슬라이서 스텔링 실버 블레이드와 사슴 뿔 손잡이를 조합한 트리플 슬라이서. **9** 클래식콘, 벨 다이닝 테이블 네로 마르퀴나 대리석 기둥과 블랙 래커 스텔 상판이 묵직함과 선명한 라인감을 동시에 드러낸 테이블. **10** 가체 & 디모프스키, 프레드 체어 레오파드 밤나무로 조각한 물결형 다리와 레오파드 패턴 패브릭이 어우러진 의자. **11** 라경슈, 클루니 루즈 붉은 레드 컬러의 에나멜 보디와 메탈릭한 디테일이 조화를 이루는 클래식 디자인의 레인지. **12** 레오파드 프린팅 벽지와 원형창 수납장, 글로시한 유리 수납 가구, 풍부한 패턴의 패브릭이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 리듬감이 살아 있는 까사오넬라 주방.



## 조용한 믹솔로지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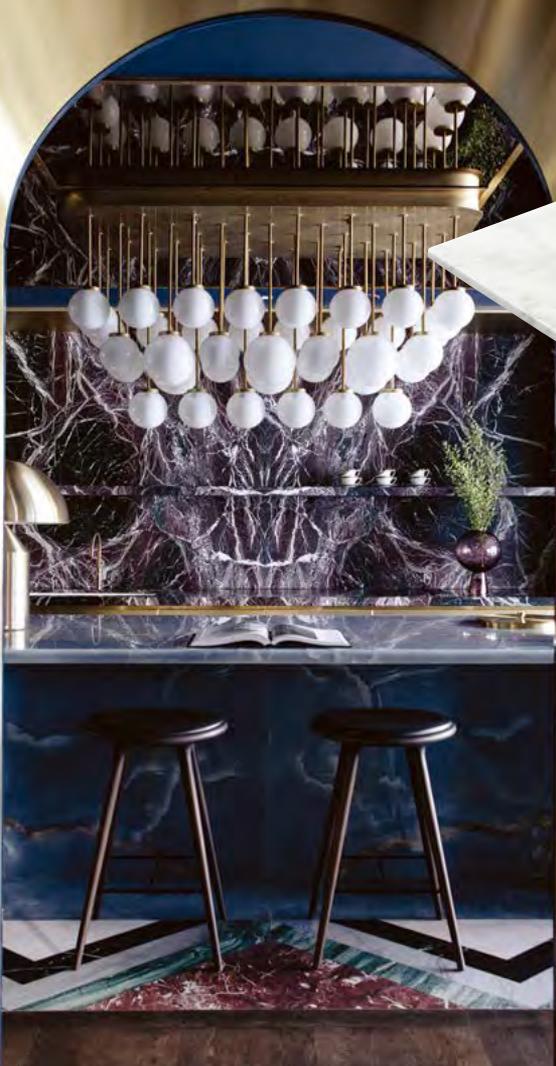
**Keyword** 홈 바, 글라스웨어, 대리석, 황동 오브제, 이브닝 리추얼

**Identity** 하루의 마무리를 한 잔의 술로 완성하는, 조용한 밤의 리추얼을 중시하는 애주가

**Kitchen Style** 컷 글라스웨어와 차분한 대리석 및 황동 오브제가 중심을 이루는 라운지형 홈 바

**Value** 혼자만의 사색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 모두를 품어줄, 가장 사적인 휴식의 무대

**1** 레미넵, 컬러캐타 블랙 깊고 짙은 검은 바탕 위에 흰색 결이 유려하게 퍼지는 세라믹 상판. **2** 베르판, 편 11DM 다섯 개의 황동 피니시 링 프레임이 조명의 섬세한 반짝임과 어우러진다. **3** 즈비젤 글라스, 마티니 글라스 바 스페셜 삼각형 실루엣의 고블렛으로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칵테일 글라스. **4** 에귀, 라티튜드 에스카파드 아이스 버킷 거울처럼 빛나는 미러 마감과 금속 와이어 구조가 어우러져 세련미와 견고함을 갖췄다. **5** 즈비젤 글라스, 바 프리미엄 No.1 시가 애쉬트레이 전면에 섬세한 커팅 디테일을 가미한 핸드메이드 글라스 애쉬트레이. **6** 마리오니, TED 1940년대 우아한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황동 프레임과 대리석 상판 테이블. **7** 라리코, 제일라 팬서 유려한 곡선과 섬세한 금속 묘사로 팬서의 강인한 자태를 생동감 있게 담아낸 조각상. **8** 놀, 플래트너 스톨 수백 개의 곡선 철제 로드로 구성된 스톨로, 루이 15세풍 장식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. **9** 바카라, 한오 텀블러 한옥의 유려한 곡선을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우아하게 표현해냈다. **10** 바카라, 하모니 위스키 디캔터 24캐럿 금가루로 구현한 강렬한 레드 스톨퍼가 인상적인 위스키 디캔터. **11** 럭셔리한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을 컨셉트로 한 로이신 라퍼티 Róisín Lafferty의 칼레이도스코프 Kaleidoscope 프로젝트.



© Abimis, Matthieu Sawang



### 워커홀릭 미니멀리스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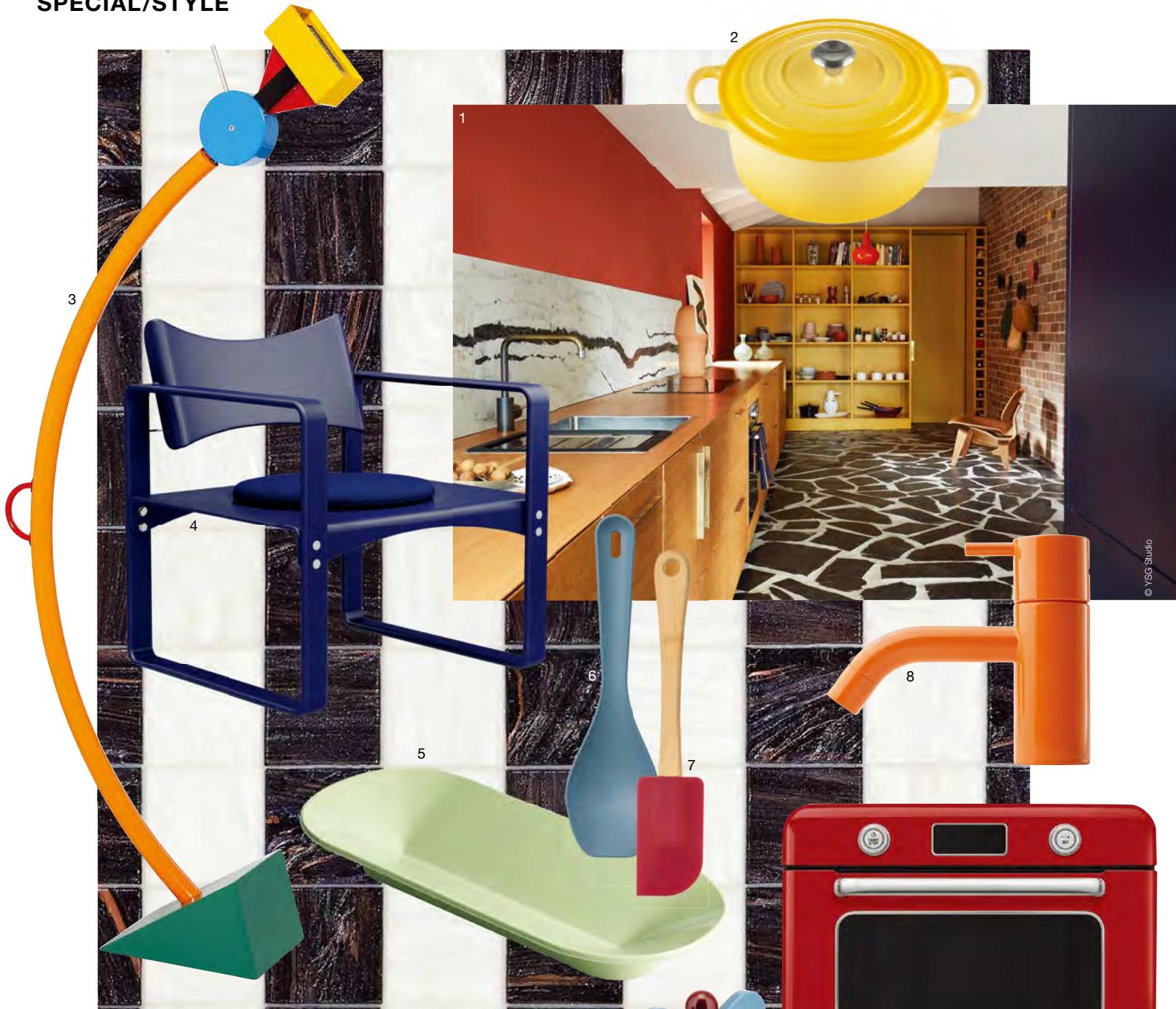
**Keyword** 금속 소재, 정돈된 라인, 효율적 구조

**Identity** 업무와 생활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환경을 선호하는 실용적 워커홀릭

**Kitchen Style** 조리대와 데스크의 경계가 흐려지는 '워크스테이션형 미니멀 주방'

**Value** 군더더기 없는 구조 속에서 집중과 업무의 흐름을 전환해주는 균형 잡힌 공간

**1, 2** 스테인리스의 절제된 주방과 데스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. 디자이너 마르탱 브롤레가 주방 브랜드 아비미스를 위해 완성한 미니멀한 작업 공간. **3 알레시, 오케이셔널 오브젝트** 버질 아블로가 커틀러리의 '미장센'을 해체해 나이프, 포크, 스푼을 하나의 오브제로 만든 디자인. 알레시 코리아에서 판매. **4 무토, 웨이브 트레이** 스테인리스 스틸을 유기적 곡선으로 성형해 파도의 결을 담아낸 웨이브 트레이. **5 레이로우, 알터 체어** 컬러 우드와 크롬 프레임이 대비를 이루며 단정한 실루엣을 만드는 알터 체어. **6 레이로우, 모프 셸프** 공간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확장, 축소할 수 있는 모듈형 모프 셸프. **7 빙, 263 솔트&페퍼 밀** 세라믹 그라인더와 회전식 상단 구조로 정교한 분쇄감을 선사하는 솔트&페퍼 밀. **8 무토, 빔 테이블 램프** 양쪽 끝으로 빛을 내는 실린더 구조와 3단계 조도 조절 다이얼이 특징인 빔 램프. **9 프라마, 리벳 사이드 테이블** 세 개의 레벨로 나뉜 원형 상판이 다층적 표면을 이루는 리벳 사이드 테이블. **10 모헤임, 스윙 빈** 완벽한 균형감과 기술기 덕분에 쓰레기통 이상의 존재감을 가지며 우산꽂이, 화병 등 다양한 용도로 확장된다. **11 무니끄, UNM001** 간결한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심플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해준다. 유엔एस에서 판매.



## 컬러를 좋아하는 미식 생활자

**Keyword** 밝은 컬러, 플레이풀 오브제, 안전한 키친웨어

**Identity** 요리와 미감이 자연스럽게 섞이는 순간을 즐기며 색깔에서 에너지를 얻는 미식가  
**Kitchen Style** 생동감 있는 컬러와 도형적 오브제가 조화를 이루는 활기 넘치는 감각형 주방  
**Value** 유쾌한 팔레트와 실용적인 도구들로 완성한 즐거운 일상의 순간

**1** 머스터드 옐로와 테라코타 레드, 그래픽 패턴의 블랙 슬레이트 바닥이 어우러지며, 공간 곳곳에 추상표현주의적 제스처가 살아 숨 쉬는 야스민 고니엠의 주방. **2** 르쿠르제, 시그니처 원형 냄비 22cm 슬레이 태양빛을 닮은 슬레이 컬러의 무쇠 주물 냄비.

**3** 펄피스, 트리플스 슬림한 구조와 생기 넘치는 컬러가 공존하는 플로어 램프. **4** 베르판, 시리즈 270 F 암체어 1965년 베르너 팬톤이 설계한 암체어로 벤트 함판으로 구현한 모듈러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준다. **5** 무도, 미어 볼 간결한 선이 접하며 형태를 이루는 미어 볼은 그 자체로 조각적 오브제다. **6** 이케아, 워필드 주걱, 숟가락, 집게의 3종이 하나로 결합되는 실용적인 조리 도구 세트. **7** 이케아, 빈테르핀트 대나무 손잡이에 붉은 실리콘 헤드가 달린 스패툴라 세트. **8** 볼라, HV1 25가지 이상의 컬러로 출시된 원핸들 수전은 욕실에 유쾌한 포인트를 더한다. **9** 스메그, 리얼스팀 콤비오븐 레드 이탈리아 장인의 노하우로 완성된 스메그 리얼스팀 콤비오븐은 스팀 제너레이터 기술로 완벽한 조리를 돕는다. **10** 알레시, 키친 타이머 마이클 그레이브스 특유의 유럽 전통과 팝 감성이 공존하는 키친 타이머. 알레시 코리아에서 판매. **11** 산칼, 볼드 스튜디오페페가 설계한 볼드는 멤피스의 유쾌한 조형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조형적 테이블이다. **12** 비사자, 레위르 누아르 원하는 면적과 컬러로 맞춤 제작 가능한 아트 모자이크 타일.

## 실용적 정리주의자

**Keyword** 확실한 수납 구조, 모듈형 시스템, 사용 빈도에 기반한 동선  
**Identity** 기능, 효율, 정돈을 최우선으로 두는 합리적 생활자  
**Kitchen Style** 군더더기를 없애고 수납과 동선 흐름을 계산한 기능 최적화형 주방  
**Value** 안정적이고 정돈된 수납력, 생활 리듬을 지지하는 구조적 질서

**1** 샌드버그, 린네 짜임이 느껴지는 린네 텍스처를 구현한 벽지는 부드럽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. **2** 드워히 디자인, 우무 펜던트 램프 철제 파이프를 정교하게 벤딩해 만든 조각 같은 조명. **3** 몬타나, 리플 물결 무늬의 유리 문으로 다양한 공간에 깊이와 개성을 더하는 모듈형 수납 시스템. **4** 몬타나, 컴파일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으로 구성된 모듈형 선반으로, 실용성과 개성을 모두 살렸다. **5** 무토, 비수 바 스툴 작고 곡선진 등받이와 길고 우아한 다리로 부드러운 실루엣을 갖춘 목재 스툴. **6** 스트링 퍼니처, 슬라이딩 도어 캐비닛 높이 조절이 가능한 선반과 중앙 칸막이로 구성되어 실용적인 수납과 깔끔한 디자인을 동시에 갖췄다. **7** 헤이, 틴 컨테이너 감각적인 그래픽 패턴과 매끄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수납 박스. **8** 몬타나, 프리 522000 한쪽 높이가 다른 비대칭 구조가 특징인 디스플레이 선반. **9** 햄, 하이드 분리형 보조 수납과 디스플레이 기능을 모두 갖춘 바퀴 구조의 다용도 테이블. **10** 파이나, 스트리카 테이블 램프 우크라이나 장인이 버드나무 줄기로 손수 엮어 만든 펜던트 램프. **11** 스튜디오 아지무 Studio Azimut가 프랑스 센강을 배경으로 펼친 플로팅 하우스의 컬러풀하고 따뜻한 인테리어.

